

통권 제 178호

2562
2018

08

마중물
그심에 가면
모든 것이 금이다



법향기
회사



절망에 담긴 이야기
눈앞의 향락에 빠져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중

자기의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사람은
이익과 안락과 진정한 지혜의 법을 얻어서
모든 번화를 끊고 능히 악한데 들어가지 아니하며
자기가 길이 지혜있는 참스승이 되어서
원만청정한 과보를 속히 증득하리라.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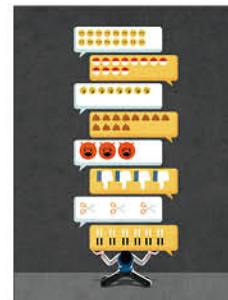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향유 _ 24

스승님,
다음에 또 만나요
_ 강동현



십선성취 _ 28

입으로 짓는 선업善業
_ 덕현



영화이야기 _ 58

라라랜드
_ 김지은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2 계율이야기

18 살다보면

24 향유

28 십선성취

32 마음의 등불

36 애견 칼럼

40 법향기

46 씨앗 한알

48 설화속으로

52 식물이야기

56 디담돌

58 영화이야기

62 특별기고

66 SNS 세상 돌아보기

69 산책

70 독자기고

72 결망에 담긴 이야기

74 컬러링 만다라세상

76 뜻 바꾸기

78 되짚어보기

멸성제 2 _ 화령

그 섬에 가면 모든 것이 금이다 _ 천전 스님

청을 받지 않았는데 옷보시를 요구하지 말라 _ 법경

노 젓는 방향과 속도 _ 이옥경

스승님, 다음에 또 만나요 _ 강동현

입으로 짓는 선업善業 _ 덕현

유두일, 막바지 여름나기 _ 이학규

열사병熱射病 _ 권도형

희사 _ 법수연

공심과 사심 _ 석준호

위증의 과보 _ 보현

궤꼬리Black-naped Oriole _ 정옥식

길 위에서 _ 지현

라라랜드 _ 김지은

순천 방생법회를 다녀와서 _ 김정숙

당신도 아버지입니다

연꽃 _ 김대곤

전수님과 친해지기 _ 여순애

눈앞의 향락에 빠져 _ 법일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신身 _ 김재동

요사寮舍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격언은
강제적인 뜻보다 깨달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만큼 우리의 생명이
활성화되어 있는 때는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일하는 동안 우리는 분명 살아 있으니까요.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을 일찍 한 사람일수록
쉽게 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일할 때에는 없던 병이
퇴직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하지 아니하면
나태 속에서 질병을 얻게 마련입니다.

농촌의 한 노인은 장수의 비결을 규칙적인
밭일과 건강한 식사라고 소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소박함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연설입니다.
평생 규칙적으로 일하고, 건강하게 식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노동의 환희이고, 삶의 기쁨입니다.

- 칼릴지브란의 『아름다운 생각』

화령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이해와 실천

열반의 종류

우리가 연기의 이치나 사성제의 도리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는 하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습성으로 굳어져 온 우리의 나쁜 성향은 상당한 수행에 의해서만 고쳐질 수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일상생활상에서는 그것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행이 껴미되지 않으면 교리적으로는 많이 알아도 싫은 것 보면 화나고 좋은 것 보면 기분이 들뜹니다. 범부중생에게 있어 견혹을 끊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수혹을 끊는다는 것은 역시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견혹을 끊고 수혹을 완전히 끊어야만 아라한으로서의 깨달음이 얻어집니다. 경전에서는 사향사과(四向四果)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은 정도에 따라 여덟 가지로 구분합니다. 수다원향(須陀洹向), 수다원과(須陀洹果), 사다함향(斯陀含向), 사다함과(斯陀含果), 아나함향(阿那含向), 아나함과(阿那含果), 아라한향(阿羅漢向), 아라한과(阿羅漢果)가 그것인데, 이것을 예류(預流), 일래(一來), 불환(不還), 무학(無學)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즉, 수다원향이라는 것은 초보의 성자를 말하는 것으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류향이라고도 합니다.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수다원과는 초보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류과라고 부릅니다. 사다함향은 견혹을 끊는 과정이며, 그것을 다 끊으면 사다함과를 얻게 됩니다. 이 단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육계에 한 번만 더 태어나면 색계와 무색계를 지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일래향, 일래과라고 합니다. 육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육계의 번뇌가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계의 번뇌가 다하면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서 그러한 번뇌를 다 끊게 된다고 합니다. 수다원향까지는 견혹을 끊은 견도의 성자로 불려집니다. 수다원과 이후는 수혹을 끊은 수도^{修道}의 성자로 불려집니다. 즉, 수다원과^{須陀洹果}와 사다함향, 사다함과, 아나함향과 아나함과, 아라한향의 여섯 단계는 수도의 성자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아나함향은 수혹을 끊고 다시는 육계에 돌아오는 일이 없이 색계와 무색계를 거쳐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환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한 것을 아나함과라고 합니다. 견도에서 일체의 견혹을 끊고 육계와 색계, 무색계의 모든 수혹의 번뇌를 단멸하면 아라한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아라한과를 무학^{無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전의 견도나 수도의 단계에 있는 성자를 유학^{有學}이라고 합니다. 배울 것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학의 아라한과를 얻으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며, 모든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이 아라한과를 얻어 성불하신 것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단계는 이처럼 복잡하지만 결국은 견도에 의하여 바른 견해를 지니고, 수도에 의하여 우리에게 훈습된 수혹을 떨쳐버리면 열반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혹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의 생존본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여간한 수행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열반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모든 갈애와 번뇌를 떨치고 괴로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열반입니다. 이러한 열반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열반 중에서도 유여열반^{有餘涅槃}과 무여열반^{無餘涅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여열반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과거의 선악업의 과보로써 얻어진 욕신이 남아 있는 한 완전한 열반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신이 있는 한은 완전히 윤회를 벗어난 것이 아

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업보에 관계된 육신까지도 완전히 없어져 버린 뒤에 얻게 되는 완전한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열반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의 입멸을 중심으로 설해진 《대반열반경》의 반열반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여열반이나 무여열반의 개념은 열반을 실재시키는 당시의 일반적인 인도인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불교에서는 원래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육신이 없어진 후에 완전한 열반이 얻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취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원래 열반이라는 말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어서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활활 타오르던 탐진치의 불꽃이 수행에 의하여 잠잠하게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경전에서는 열반을 한 마디로 정의하여 ‘탐욕이 멀하고 진애가 멀하고 우치가 멀한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즉 탐진치의 삼독의 번뇌가 완전히 멸한 것이 열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은 몸과 마음이 모두 없어져서 아무 것도 없는 회신멸지(灰身滅智)의 상태가 아닙니다. 즉, 죽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되

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는 다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생명의 소멸이 아니라 모든 번뇌가 멀해서 마음이 적정안온의 이상적인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그 섬에 가면 모든 것이 금이다

천진스님
블로그 '보리심의 새싹' 운영



어느 날 스님께서, 신심 있는 보살님께 요즘 잘 지내시느냐고 물으시니, 그분께서 “수행만 해야 하는데, 아직도 일을 못 놓고 중생 놀음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그 보살님께 다음과 같은 법문을 들려 주셨다.

“이 세상에는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면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섬에는 모래, 나무, 바위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금이에요. 그 곳에서 자라는 과일도 금이고, 풀도 모두 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쉰 똥까지 모두 금입니다.

진리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하나의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밀가루로 칼국수도 만들고, 찌뽕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듯이 모든 것이 불가사의한 공성의 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따로 고요와 걱정을 구하지 마시고,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와 걱정을 동시에 자각해 보세요. 항상 고요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자체로 고요와 걱정이에요.

고요와 걱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이러한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지무명(無知無明), 업보의 구름이 정견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본래부터 현존하는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삼독심과 오욕락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수행자는 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전식득지(轉識得智)라고 들어보셨죠?

삼독심의 마음으로 잘 사용하여 지혜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돈이 많다고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욕심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을 가치 없이 쓰게 됩니다. 욕심이 적고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많아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 베푼다.

정견을 갖춘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존재를 이익 되게 해요. 항상 똑바로 봐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사고해를 해결하신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전해 주는 스님들과 선지식께 귀의하는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머지않아 생사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삼보께 지극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계를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최고의 수행입니다.” 卍

청을 받지 않았는데 옷보시를 요구하지 말라

법경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청정한 계을 _ 39

불수청전결의계 不受請前乞衣戒

부처님 당시 출가 수행자들은 버려진 천을 주워 다가 여러 번 기워서 입곤 하였다. 다 헤어지면 또다시 덧대어 입기도 하고 이를 뒤집어서 입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누더기 그 자체였다. 이것이 출가수행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누더기라 해서 더럽게 입고 다니지 않았다. 더러운 오물이 묻거나 냄새가 나도록 입고 다니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항상 청결과 위생을 강조하셨기 때문이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서 입었다.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사는 승원(僧院)에서 승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여러 율장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출가 수행자들은 항상 누더기 옷만을 입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다. 보시를 받아 입었기에 여러 벌을 지닌 수행자가 있었고, 질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수행자도 있었다. 보시 받은 옷을 가치나라고 부른다. 가치나는 공덕의(功德衣)라는 뜻이다. 공덕의(功德衣)는 출가 수행자에게 옷을 보시함으로써 공덕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일컬어진 말이다. 보시는 주로 국왕이나 거사들에 의해 출가 수행자들에게 행하여졌다. 그 당시에는 음식과 옷이 보시의 주요 품목이었으며, 옷보시가 많이 행해졌다.

보시에는 대원칙의 가르침이 있다. 보시를 하는 사람도 깨끗해야 하



고 보시를 받는 사람도 청정해야 하며 보시하는 물건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 한다. 특히 보시 받는 사람이 출가 수행자라면 더더욱 청정해야 한다. 수행자다운 모습과 위의를 지녀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한 수행자들도 더러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옷보시와 관련된 계율을 많이 제정하였다.

삼륜청정을 달리 말하면, 보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보시를 받아야 하지만 보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보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보시 받을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경우라 할 수 있다.

재가자가 보시도 하기 전에 먼저 출가수행자가 나서서 ‘이렇게 맞춰 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출가 수행자의 바른 행이 아니며 위의도 아니며, 수행자다운 모습도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의 청을 받기 전에 먼저 옷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계를 제정하였다. 이를 불수청전걸의계(不受請前乞衣戒)라 한다.

불수청전걸의계(不受請前乞衣戒)의 조문과 인연담

불수청전걸의계(不受請前乞衣戒)는 옷보시의 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먼저 옷을 요구하지 말라는 계다. 계의 조문(條文)과 인연담을 율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비구 한 명이 밥을 얻으러 마을에 나갔다가 어느 거사 부부가 옷보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발난다 비구에게 얼마정도의 돈으로 옷을 지어 보시하는 것이 좋겠소.”

두 부부가 나누는 얘기를 듣고 나서 승원으로 돌아온 결식 비구는 발난다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발난다 대덕이여, 비구께서는 참으로 복이 많으십니다.”

“내가 무슨 복이 많다는 것이오?”

결식 비구는 마을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발난다 비구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 얘기를 듣고 발난다 비구는 마음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래, 그 부부는 나의 단골 시주이니 마땅히 내게 옷을 보시하려 한 것이다.’

이튿날 아침 일찍 발난다 비구는 마을에 밥을 얻으러 가던 차에 거사 부부의 집에 들러 이렇게 물었다.

“거사께서 제게 옷을 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네, 제 집사람과 그런 얘기를 나누기는 하였습니다.”

발난다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사에게 이렇게 재촉했다.

“이왕에 옷을 지으려거든 넓고 크고 좋은 것으로 해주시오.”

이 말을 들은 거사 부부는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집사람과 얘기만 나눈 것이지 아직 보시하겠다는 결정은 하지 않았소. 결정하지도 않고 예정만 했을 뿐인데, 사문 석자가 부끄러움도 없이 남이 비밀로 나눈 얘기를 전해 듣고 허욕을 부리는구나. 겉으로는 스스로 정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욕심을 부리니 무슨 정법이 들었겠는가.”

거사는 출가 수행자를 크게 비난하였다.

나쁜 평판을 전해 들은 부처님은 발난다 비구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였다.

“만약 어떤 비구 비구니가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비구 비구니를 위하여 옷을 마련하는 중에 주는 대로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거사의 집을 찾아가서 ‘장하다. 거사여. 이왕이면 이리이러한 좋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옷을 보시받는 자는 사타죄가 되느니라.”

주지 않는데 가져 가는 것을 투도^{투도}라 하는데, 반강제적으로 과하게 요구하는 것 역시 투도라 할 수 있다. 강탈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보시의 청을 하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만들어 달라 저렇게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강제해서 뺏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보시하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만약 비구가 요구한 옷이 거사가 준비한 옷 보다 몇 배나 값이 더 비싸다면 보시하는 사람에겐 낭패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민폐를 끼치는 일이다.

이치에 맞지 않고 도리에도 어긋난다. 참다운 보시라 할 수 없으며, 참수행자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시의 참뜻이 삼륜청정에 있기 때문이다.

보시는 부담을 가져도,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된다. 오직 청정하고 환희한 마음이어야 한다. ♫



다음 호에서는 ‘악을 먹되 기한을 넘기지 말라’는 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 젓는 방향과 속도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예정됐던 대로 그럴듯한 취임식을 치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태풍 뿌라삐룬으로 인해 규모를 줄이거나 비상 근무 체계로 민선 7기를 출범했다.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 속에 장마전선과 맞물린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비롯해 직·간접 영향권에 든 남부 지방에 많은 비와 함께 돌풍이 불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태풍 뿌라삐룬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를 비켜 동해상에서 소멸했다. 한숨 돌렸다 싶는데 이번에는 쪽박 깨지는 소리가 심상치 않다. 선거를 치르면서 불거진 갈등과 반목을 잠재우고,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겠노라는 취임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거지는 보복성 또는 보은성 인사 논란. 파행 인사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칼을 든 사람 앞에서 의연하고 대변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부끄럽고, 인정하기도 싫지만 절대권력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줄을 서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게 우리 갑남을녀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써야 모든 일이 잘된다.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에 불협화음이 있을 리 없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고루 갖춘 사람을 걸고넘어질 바보도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좋은 말이다.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인재를 발탁하는 것도 선택받은 자의 권한이고 능력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감지되는 이 묘한 기류는 무얼까.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소통하고 화합하겠노라는 취임사에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일이 속출하고 있으니….

공명정대한 판단이라고 믿고 싶다. 굵은 부위를 뿌리째 도려내겠다는 냉철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우려가 앞선다.

노를 짓는 방향과 속도가 불안하다. 인수위원회를 가동했다고 해도 짧은 시간에 그 방대한 조직을 어찌 속속들이 들여다봤을 것이며, 옥석을 가리는 뛰어난 혜안을 가졌다 해도 하루 이틀 사이에 어찌 그 많은 사람의 면면을 꿰뚫어 봤을지.

남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더 많았을 거라고 하면 지나친 추측이 될까. 그의 선거를 도운 사람이거나 그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를 하여 최측근. 맞춤형 정보라 달콤한 건 기본이요, 빨 것까지도 매운 양념으로 더해졌으니(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다. 방향타나 속도계의 성능에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다.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정보는 위험하다. 쾌속 질주를 위해 돛을 올리고 노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항을 위해서는 잠깐의 숨 고르기도 필요하다. 돛은 탄탄한지, 노는 제대로 갖춰졌는지, 바람의 결과 물살의 속도를 살피고, 함께 나아갈 동료와의 호흡도 맞춰봐야 한다. 출발이 조금 더디다고 해서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단한 장비, 정확한 방향과 속도, 일사불란한 팀워크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안전한 항해를 약속한다.

3층 누각을 갖고 싶었던 어리석은 졸부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지.

어느 부잣집의 화려하고 웅장한 누각을 본 졸부가 뛰어남 목수를 불러 많은 보수를 약속하며 더 훌륭한 3층 누각을 짓게 했다. 목수가 땅을 고르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을 지켜보던 졸부는 아래 두 층은 필요가 없으니 삼층부터 지으라고 목수를 다그쳤다. 졸부는 아래층을 짓지 않고 어떻게 둘째 층을 지을 수 있으며, 둘째 층을 짓지 않고 어떻게 셋째 층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는 목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층만을 고집했고, 급기야 목수는 짐을 챙겨 떠나고 말았다. (백유경 百喻經)

작금의 사태가 백유경의 비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졸부의 어리석음이 그리하듯 균형을 잃은 성급한 판단에서는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의 삼보(三寶)를 무시한 채 게으름을 피우면서 아라한의 결과만을 구하고자 하는 몰염치의 냄새가 느껴진다. 과정 없이 어떻게 결과에 이를 수 있겠는가. 삼보의 중요성에 대한 깨우침은 차지하고, 모든 일에는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는 말씀으로도 들린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도 한 번쯤 되새겼으면 좋겠다.

선거가 끝나고 나니 이런저런 뒷말이 많다. 참패한 야당이나 압승을 거둔 여당이 쏟아내는 자성(自省)과 자축의 이야기도 봇물이 터진다. 야당 의원들이 잘못했노라 국민 앞에 무릎을 꿇은 일을 두고도 진정성이 있다 없다 갑론을박이 난무한다. 승리에 자만하지 않겠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겠다, 개혁과 혁신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공언에도 의심의 무게가 실린다.

선거운동이 펼쳐지는 동안 우리 앞에 참으로 많은 청사진이 펼쳐졌지만, 넘치는 인사와 존경이 쏟아졌지만, 열심히 일하고 잘 받들어 모시겠노라 풍성한 말의 잔치가 벌어졌지만 여기까지. 3층 누각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던 탓도 여기까지.

많은 정치인(지도자)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건 그만큼 초심을 잃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일 터. 불통을 소통으로, 분열과 질서를 통합과 상생으로 바꾸는 건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약^{公約}을 공약^{公約}으로 내동댕이치는 ‘그들’을 응징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 힘센 ‘우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큰 피해를 남기기도 하지만 태풍에도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 많은 비가 가뭄을 해소시키고, 높은 파도가 바다를 뒤집어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주며, 바람과 비가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씻어 주기도 하고, 고위도지방에 집중된 열을 저위도 지방으로 옮겨 지구의 온도를 균형 있게 맞춰 주기도 한다는... 거대한 파괴력만큼 거대한 정화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우리 앞에 불어닥친 또 다른 태풍이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를.

의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소용돌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머지않아 곧, 경솔했노라 진심을 담아 ‘그들’에게 보낼 반성문이라도 쓸 수 있게 되기를. ♣



스승님, 다음에 또 만나요

강동현
관성사 교도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하고 묻는 남편에게 나는 “자상함이 묻었네요.” 답한다.

남편은 무슨 그런 오글거리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는 표정을 짓고 있다. 나는 오글거리는 말이든 따뜻한 말이든 좋은 말은 다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말을 하려고 한다. 나는 그런 것들을 나의 스승님으로부터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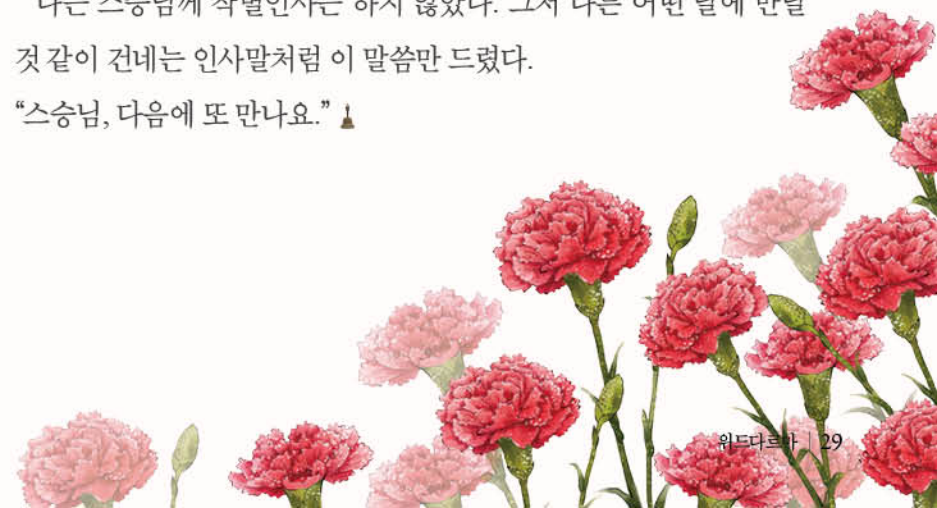
나는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행복하다는 것을 느껴볼 새도 없이 어른이 되었고, 무엇이든지 이 세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던 적도 있었다. 불행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 고통이었다. 절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이 정화되고 그 덕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다. 그 때, 스승님을 만났다. 그냥 절에 계신 정사님이 아니라 온전히 스승님으로, 제자로 나는 그 분을 만났다. 내가 만난 스승님은 딴 세상 사람이었다. 중년이였지만 무섭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자식들에게 자애로우셨고, 전수님께서는 농담을 잘 하시고 오글거리는 말 씀도 자주 하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식에게 친절 한 아버지를 만난 것이 나한테는 문화 충격이었다. 내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비현실적인 가장의 모습 이었다. 내가 아는 중년의 남자들은 폭력적이거나 술주정뱅이거나, 어른답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였기에 나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 분을 곁에서 보면서 나는 조금씩 사람의 기준을 높여가고 있었나 보다. 내가 잘못을 하면 화내거나 채근하기보다 기다려 주셨다. 나는 그런 것에 익숙치 않아서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 겁먹고 별벌 떨고 있으면 스승님은 괜찮다고 말해 주셨다. 나는 그전까지 한 번도 내 잘못에 너그럽게 용서받은 적이 없었다. 내 잘못도 아닌데 같이 혼난 적도 많았다. 나는 눈치보고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고 무사히 하루를 건너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스승님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잘못에만 고개를 숙이고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그 분을 통해서 배웠다. 그 분은 한참 어린 제자한테도 잘못하시면 미안하다고 꼭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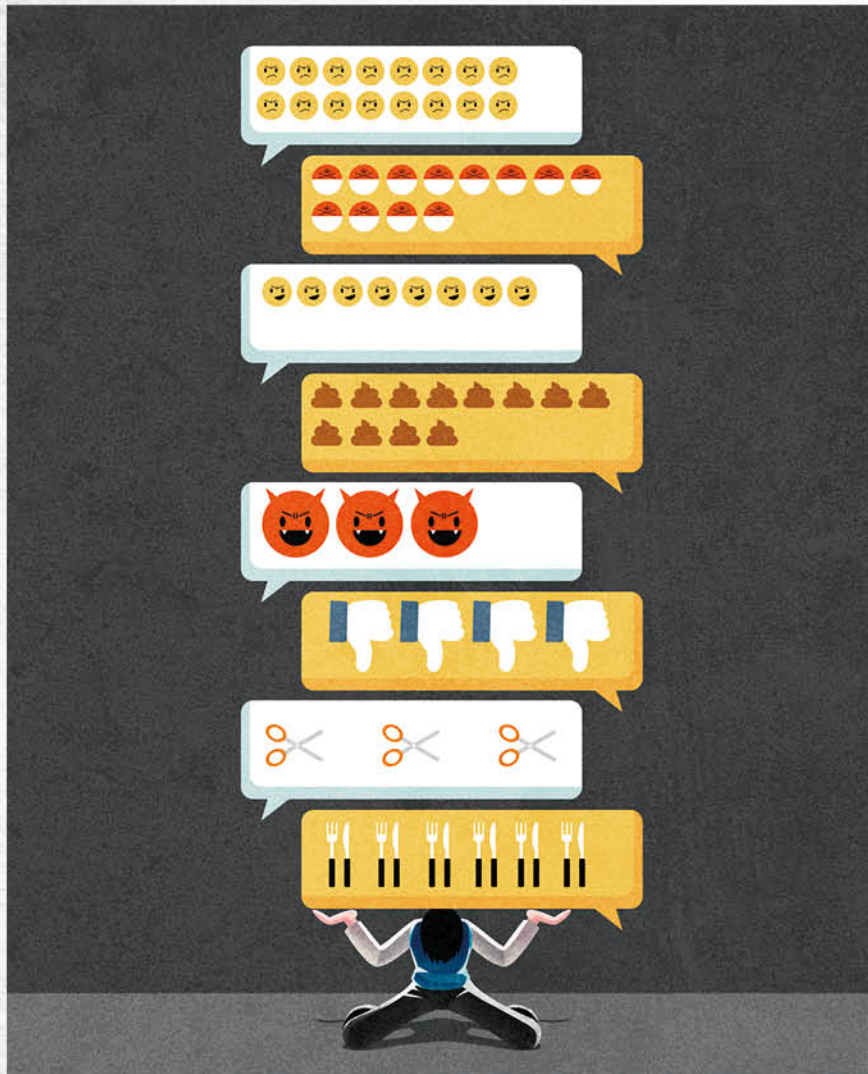
충격적이었지만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그런가, 늘 순종만 하고 억울해도 말 한마디 못했던 날들에게서 벗어나 20대에 사춘기가 왔나 할 정도로 내가 판단했을 때 어른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가차 없이 대들었던 것 같다. 나는 그 때 좋은 어른을 만났지만 나는 좋은 어른이 아니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좌충우돌 골칫덩이였다. 그 때가 사람답지 못한 날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골칫덩이였을 때조차도 스승님은 나를 내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지지해 주셨다. 나는 그 분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다. 절에 계신 스승님이지만 내가 존경하는 어른이시기도 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들이며,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들. 스승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나는 그것도 충격적이었다. ‘스승님은 속이 없나?’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스승님은 화내지 않으셨다. 다른 것은 다 배우는데 화내지 않는 것은 안 배우겠다고 생각했다. 어린 마음에 스승님처럼 살면 화병이 날 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스승님의 자식이 되고 싶었다.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마음으로 화를 낸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스승님의 자식이었다. 자식처럼 나를 길러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 나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스승님이 살아 오셨던 방향으로 나를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움에는 늦음이 없다시며 60이 넘으신 연세에도 컴퓨터를 배우러 다니시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무엇이든 배우고 있다. 사람의 됴됨이를 배

운 적이 없던 나는 스승님과 함께 했던 몇 해 동안 그 모든 것을 배웠다. 배운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어른 밑에서 좋은 것을 배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어른으로, 좋은 부모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스승님 같은 남편도 얻었고, 그래서 내 아이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또 어떤 누군가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

그런 스승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서울에서부터 경주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서울에서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장례식장 밖에서 한참을 울었다. 영정 앞에서 한참을 참회했다. 온전히 나를 위해서 오신 것 같은 나만의 맞춤 스승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밤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내 스승님이셔서 감사하다고,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기도 드렸다. 스승님의 넓은 그늘 아래서 쫓고 까불고 하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어리석은 제자가 드리는 기도였다.

나는 스승님께 작별인사는 하지 않았다. 그저 다른 어떤 날에 만날 것 같이 건네는 인사말처럼 이 말씀만 드렸다.
“스승님, 다음에 또 만나요.” ♣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 口業이라 하며, 구업에는 망어 妄語·양설 兩舌·악구 惡口·기어 綺語가 있습니다.

망어는 남을 속이려고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며 자신과 남을 속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망어를 하지 않으면 입이 항상 청정하여 우담발화의 향기가 나고, 세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말함에 있어 신용을 얻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항상 부드럽고 자비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끌며, 기쁨이 넘쳐 말에 실수가 없으며, 모든 것이 즐겁고 환희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말을 부드럽고 항상 바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양설은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양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양설에는 항상 이간이란 말이 같이 붙습니다. 이는 양쪽 사람에게 이 말, 저 말을 하는 것으로,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말하는 것입니다. 양설은 또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변덕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설을 하지 않으면 큰 이로움을 얻고, 심신 心身이 괴롭지 않으며, 권속들이 곤란을 겪지 않고 믿음과 신뢰에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간양설하지 않으면, 행하는 것이 항상 올바르고 주변에서 많은 선지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악구란 더러운 입을 말하는 것이며, 악한 말이나 욕설,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남의 마음에 깊고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악구를 하지 않으면 항상 도^道에 어긋나지 않으며 남과 자기를 이롭게 하고 말이 반드시 이치에 합당하며 말과 마음은 부드럽고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말에 수순하고, 신용^{信用}이 있게 되며 비방 받지 않고 모두가 좋아하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악구^{惡口}보다 애어^{愛語}로써 살아갑시다.

기어는 꾸미는 말로 감언이설^{甘言利說}이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며 기만^{欺瞞}하는 것입니다.

기어를 하지 않으면 지혜^{智慧}있는 사람으로서 모두의 의지처가 되고,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묻고 따르게 하며 인천^{人天}에 덕^德과 위^{威儀}가 최승^{最勝}하여 신망이 두터워진다고 합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을 예쁘게 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말을 하기 때문에 구업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으로 가장 쉽게 악업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써 업을 잘 지으면 최상의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욕설, 거짓말, 이간질 등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선업을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



유두일,
막바지 여름나기이학규(李學逵)
조선후기 문인

六月之中流頭節
東京屋雷相烘熱
彈冠振衣莫須遲
流觴曲水行當設

육월지중유두절
동경옥류상홍열
탄관진의막수지
유상곡수행당설

6월의 한 가운데 유두절에는
경주의 지붕이 모두 달구어지지
갓과 옷깃의 먼지 털기 지체하지 말게나
물꺽이에 술잔 띄워 노는 자리 마련하리니

- 원효(元曉),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

장마가 끝나고 찜통더위가 한창인 요즘이다. 매년 이맘때면 더위를 피해서 하던 일을 잠시 접어두고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옛 선인들도 이때쯤의 날씨가 견디기 힘들었는지 음력 6월 15일 하루 동안 가까운 물가로 일종의 휴가를 다녀왔다. 이날을 유두일(流頭日) 혹은 유두절(流頭節)이라고 하였고 이날 술을 마시며 벌이는 잔치를 유두연(流頭宴)이라고 불렀다.

위는 유두연에 대해 읊은 시이다. 먼저 시에 달린 원주를 살펴보면, 유두연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상식을 지적하고 있다. 하삭(河朔)의 피서음(避暑飲)이란, 후한(後漢) 말에 광록대부 유송(劉松)이 하삭으로 원소(袁紹)의 군대를 위무하러 가서 원소의 자제들과 삼복더위에 술자리를 벌여 밤낮으로 술을 즐긴 고사에서 온 말인데, 무더운 여름철에 피서(避暑)하는 술자리를 뜻하는 말이다. 즉, 액막이 제사와는 애초에 관련이 없고 그저 더위를 피해서 술을 마시던 옛일을 본받은 것뿐인데, 당시 사람들은 유두일만 되면 반드시 액막이 제사를 지냈기에 한 말이다.

시의 본문 3구는 목욕일랑 얼른 마치고 빨리 와서 술이나 마시자는 말이다. 새로 목욕을 한 사람은 반드시 갓과 옷깃을 털다는 굴원(屈原)의 옛말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4구의 ‘유상곡수(流觴曲水)’는 왕희지(王羲之)의 「난정기(蘭亭記)」에 나온 말로, 근사한 술자리를 얼른 마련하겠다는 뜻이

다. 선비 하나가 시원한 계곡에서 먹을 감다가 벗들의 성화에 못 이겨 물에서 나와 너럭바위에 앉아 술을 마시며 왁자지껄 떠드는 광경이 떠오른다.

다음은 허적(許積, 1563~1640)의 「유두일에 다른 사람의 시에 차운하다[流頭日 次人韻]」이다.

擾擾綠雲飛瀑下 요요록운비폭하
人爭濯熱事遨遊 인쟁탁열사오유
自憐短髮渾霜雪 자련단발혼상설
不願淸冷灑我頭 불원청랭쇄이두

푸른 구름 어지러이 흩어진 폭포수 아래
사람들 더위 식히려 앞 다투어 달려가누나
가련타 성근 머리털에 온통 눈서리 내렸으니
내 머리에 차가운 물 끼얹고 싶지 않노라

본인이 피서를 위해 물가로 가지 않는 이유를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지러이 흩어진 푸른 구름은 아직 젊고 머리술이 풍성한 타인들을 은연중 비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 머리술이 적은

데다 그나마도 온통 하얗게 세어버린 본인의 머리는 눈서리를 맞았기 때문에 차가운 계곡물을 부으면 더 차가워지니 굳이 끼얹지 않겠다고 한다. 재치와 유머가 돋보이는 시이다.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강만문(姜萬文)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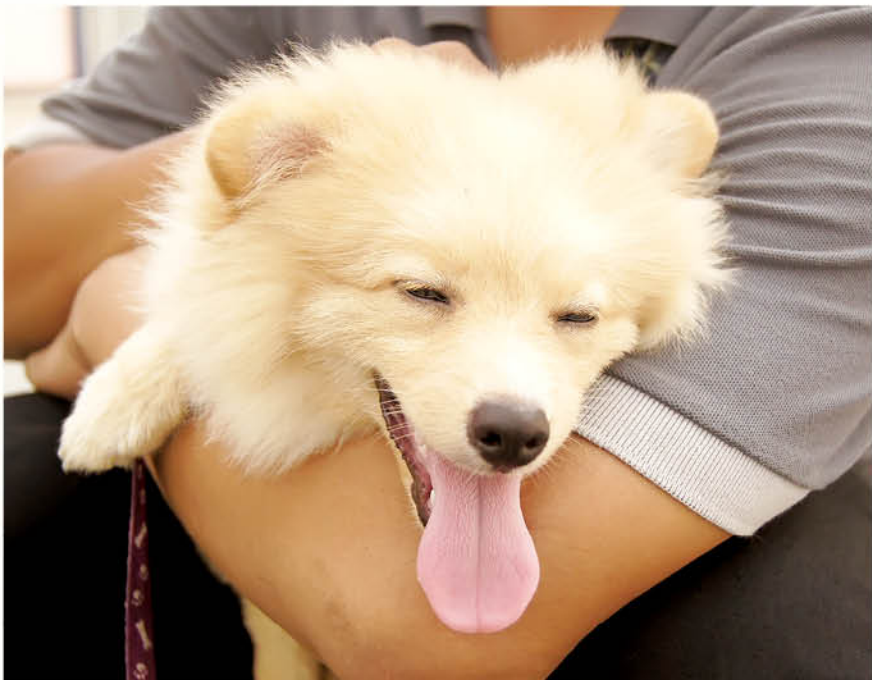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열사병 熱射病

권도형

닥터펫동물의료센터 원장
수의내과학 석사
수의사



열사병이란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면서 체내의 열발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체온이 높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땀을 흘리며 체온을 낮춰줄 수 있지만, 반려견들은 체표면에 땀샘이 없기 때문에 체온조절을 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뜨거운 숨을 뱉어내게 됩니다. 사람들 보다 훨씬 더위에 취약하다는 뜻이죠.

조금만 더워도 헛바닥을 짹 내밀고 헹헹거리는 반려견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높아진 체온을 낮추기 위해 반려견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려견의 경우 체온이 40.5℃ 이상이 된다면 고체온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더 이상 고온환경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모세혈관 확장 및 호흡을 통해 체온을 낮추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고온 환경에 노출이 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발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습도까지 높다면 단 30분만에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기온도 높지만 습도까지 높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심장질환, 호흡기질환이 있는 반려견, 비만인 반려견들은 건강한 아이들보다 더위에 취약하고 쉽게 열사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낮시간대에 산책하는 것을 반드시 피해주셔야 합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지열(地熱)은 체고(體高)가 낮은 동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더 뜨겁게 느끼게 된답니다.

따라서, 여름철 산책은 아침시간 또는 해가 진 이후의 저녁시간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반려견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차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꼭 한 시간마다 쉬어주시길 바라며, 절대로 반려견만 차에 놔두고 자리를 비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 차안에 반려견이 혼자 있게 되면 단 10분 만에 열사병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반려견이 열사병의 위험에 노출이 되었다면 빠르게 그 증상들을 인식하시고 응급처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더운 환경에서 반려견이 너무 심하게 헉헉거림을 보인다면, 숨을 쉴 때마다 숨소리가 너무 거칠게 들린다면, 혀바닥 색깔이 푸르게 변한다면 그 즉시 시원한 그늘을 찾아서 움직임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주셔야 합니다. 휴식을 하는 동안 분무기를 통해 물을 분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열사병이 의심된다고 해서 차가운 물에 반려견을 완전히 담궈버리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순간적으로 모세혈관들이 수축해서 '쇼크증상^{shock}'을 보일 수 있고,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원한 그늘에서 천천히 체온을 낮출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느정도 호흡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빠르게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검사해보셔야 합니다. 반려견의 외관상 큰 문제가 없어보일지라도 체내 여러장기들은 고열에 의해 기능적인 손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열사병으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경련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열사병의 경우 얼마나 빠르게 그 상황을 인식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하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보호자님들께서는 꼭 알고계셔야 하고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평소 다니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수의사선생님과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름철 반려견 뿐만 아니라 보호자님들도 더위 조심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





회사

(종조법설집 p.165 제2장 수행편)

7. 회사 묘덕은 가난한 사람에게 수입이 많아지고 부유^{富貴}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헛되게 나가는 것이 적어지는 것이니
각자가 절량^{節量}, 차별^{差別}, 십일회사를 실천하여
그 묘덕을 내증^{內證}하여 볼 것이니라.
8. 절량회사 묘덕은 양식^{糧食}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일체 재난^{災難}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차별회사 묘덕은 무슨 서원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

이 계절 즈음의 어느 날 보살님이 마음이 아프다면서 속내를 털어 놓았습니다. 방학식을 마치고 온 딸아이가 해맑게 물었답니다. “엄마, 개학하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다들 다른 나라 여행 갔다 오고, 또 나한테도 어디 갔다 왔냐고 물을 텐데,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어?” 엄마의 눈치를 살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환경을 원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들으니 보살님의 가슴이 참 미어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딸이 커서 엄마를 모시고, 해외여행 한 번 째는 다녀왔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회사의 휴가기간과 아이들의 방학기간이 겹치는 요즈음, 많은 분들

이 국내외를 여행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기회와 상황에 평소 우리가 수행해 오던 법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부처님의 공덕을 만끽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참고가 될 만한 두 편의 짧은 체험담을 소개합니다.

내 집 없이는 살아도 자동차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있지요. 멋지고 세련된 차를 타고 아름다운 지역을 드라이브할 때의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자동차로 인해 얻은 많은 편리함이 있겠지만, 자동차로 인해 가슴 아픈 일들 역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A보살님은 각자님, 아들, 딸, 시동생 이렇게 다섯 명이 여름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답니다. 톨게이트를 막 빠져나오는데, 교통 경찰관이 돌던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관은 규정 속도에 대해서 다소 흥분한 투로 당부를 하였기에, A보살님을 비롯한 가족들은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답니다. 운전을 하던 각자님 역시 짜증을 냈습니다. ‘에이, 집에 잘 가는 사람을 세우고, 뭐 어찌라는 거야. 지금부터는 네가 운전해.’라며 시동생에게 핸들을 넘겼습니다.

도로 사정상 경찰이 염려하는 속도위반은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순간 A보살님은 시동생의 안전운전을 서원하며 다섯 명 앞으로 차별회사를 한 후 말했습니다. “도련님, 바쁘지 않으니 쉬엄쉬엄 갑시다. 아마 경찰이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고 가라고 잡았던 것 같아요.” 시동생 또한, “그러지요. 형수님은 절에 열심히 다니더니 말도 부처님처럼 하시네요.” 라도 대답하여 차안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나

기도 했습니다.

시동생은 제한속도를 잘 지켰고, 보살님은 염주를 놓지 않고 항송을 하며 추풍령 고개를 넘어서는데, 바로 앞의 4개 차선에 대형 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통경찰이 차를 잡지 않았다면, 사고 당사자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교통 경찰관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던 시동생조차 형수님과 함께 다니면 만사가 형통하다면서, 염주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길을 떠나기 전에도 불공과 회사를 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진리적으로 차별 회사를 실천하고, 현실적으로는 교통경찰을 원망하지 않고, 서행하라는 당체법문으로 수용하여 안전운전을 독려했기에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진리를 잘 구분하고 응용하여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앞 둔 B보살님이 인터넷으로 저가항공을 예매하여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표를 발권하기 위해 창구에 가니, 애초 예약했던 10시 비행기가 결항이니 죄송하지만 오후 1시 비행기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창구 근처에는 커다란 골프가방을 둘러싼 아저씨들이 고함을 지르며 야단법석이고, 하얀 얼굴의 여직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땀을 흘리며 뭐라 뭐라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비행기면 하루의 일정과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시간인지라 무척 난감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잠시 육자진언을 몇 번 염송하는데 뇌리를 스치는 이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답은 차별 회사법! 오늘 일정에 지장 없기를 서원하며 동시에 항공을 하면서 항공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00항공사 입니까?” 라고 했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기에 비행기의 결항 소식을 전하며, “없는 시간을 내어 진짜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암전히 사정을 했습니다.

뜻밖에도 “사모님 몇 분이세요? 전화번호 주시고 내려가셔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의외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시 비행기를 포기하고 힘 빠져 있는 친구들에겐 얘기하지 않고 기다리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건너편 화장실 앞으로 혼자 오세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여 친구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갔더니 10시에 제주도로 떠나는 대형 항공사의 비행기 티켓을 건네주며 오늘 겪었을 불편함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를 건네는 게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비행기표를 구했느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도술을 부리는 게 아니냐며, 어린 아이들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비행기 탑승구로 이동할 때까지도 골프가방을 든 아저씨들은 목청을 높이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반면 B보살님 일행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원했던 시각에 고가항공을 통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 내내 친구들은 불공을 종용하며 ‘옴마니반메 흙’을 입 모아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을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진언염송의 공덕을 피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천지팔양신주경에 “유위법을 일으키고 쓰더라도 먼저 경을 읽고 정진하면 크게 길리 하고 이익되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 그동안 공부한 불공법을 다재다능하게 활용하여 생활불교의 진가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행복한 휴가여행을 누리기를 서원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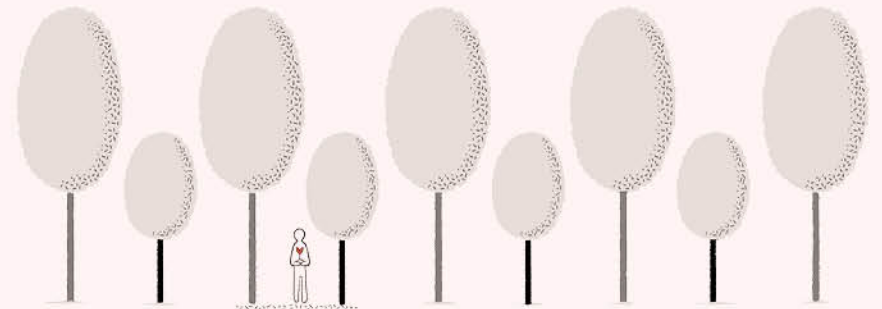
공심과 사심

석준호
정심사 교도



사람의 마음에는 공심^{公心}과 사심^{私心}이 공존합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은 공심이죠.
공심이란 나를 포함한 모두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고,
사심은 오로지 나만을 위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심으로 일을 대하다가도 사심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헛된 피임이죠.

우리는 항상 공심을 지킴으로써 나만의 욕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더불어 이익 되게 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공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일심^{一心}을 지니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속에는 공심과 사심이 항상 다투고 있지만
그것을 한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능력입니다.
비록 사심이라는 두 번째 마음이 성가시게 하더라도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심으로 공심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나만의 욕심을 위하는 마음을 나를 포함한
모두를 아낄 수 있는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심이고 보살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이 곧 일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공심을 지켜야겠다는
한결 같은 마음만 간절하다면 우리는 참다운 인간세상,
모두가 행복한 정토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



위증의 과보

보현
실보사 전수

사뭇티에 큰 부자가 있었다. 그에게 있어 유일한 걱정거리는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 나라의 법에는 가장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은 국가에 환원된다는 법이 있었다. 부자는 자신의 죽음 후에도 남은 가족들이 평안하길 바라기에 어여쁘고 현명한 딸이 다섯이나 있음에도 근심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는 치료가 힘든 병에 걸리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다. 부자의 부고에 왕은 부자의 재산을 환수하라 지시하였다.

부자의 아내는 자신이 임신 중임을 알렸고 해산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왕에게 진정하였다. 왕은 이 진정을 듣고 해산날을 기다려 아들을

낳으면 재산 몰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 후 달이 차서 부자의 아내는 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아기의 모습은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모습이 남근을 빼고는 다 두루뭇술하니 확실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이에 아이의 이름을 만지비리하고 하였다. 남자아이만은 확실한데 그 형상이 인간의 형상이 아닌 이 상황에 왕은 많은 고심을 하였다. 사내아이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으니 다른 부분이 확실치 않다하여 상속권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왕은 재산을 만지비리에게 상속할 것을 알렸다.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이웃은 부처님께 가서 인간의 형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내라는 이유로 아들이 재산을 상속 받게 된 연유를 여쭙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그 아들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셨다.

옛날 부자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젊을 때부터 정직하고 진실하며 남한테 베풀기를 좋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나라 안에 그의 신의와 착함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기에 왕은 그에게 재판관의 임무를 맡겨 소송의 시비를 가려 판단하게 하였다.

그때 재판관의 아우와 친분이 있는 상인이 사업 준비에 드는 거금을 아우에게 꾸게 되었다. 아우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상인에게 돈을 내어주고 형님인 재판관을 찾아갔다.

그 나라 법에는 빌려 주고 받는 데 있어서 증서는 쓰지 않아도 증인을 대동하여야만 했었다.



아우는 상인이 돈을 꾸었는데 돌아와서 갚는다 하니 형님이 증인이 되어주고, 만일 본인이 죽거든 자신의 아들이 그 돈을 받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재판관인 형은 손가락으로 돈을 가르키며 ‘그리하마’라고 승낙을 했다.

그 후 상인은 바다에 나갔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파선을 당하고 몇 해 만에 겨우 목숨만 건져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돈을 꾸어준 아우가 죽었음을 알게 되었고 아우의 외아들이 자신을 몰라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외아들이 몰라본 것이 아니었다. 힘들어 하는 상인의 모습에 시일을 조금 더 주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상인은 일언의 말도 없이 모른 채하며 다시 바다로 나갔고 이번엔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욕심이 생긴 상인은 외아들에게 빚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상인이 큰돈을 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외아들은 빚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욕심에 눈이 먼 상인은 빚을 갚지 않을 길이 없을까 궁리하였다.

그는 귀한 보석들을 한아름 재판관의 아내에게 가져가 그 때 재판관이 증인 쓴 것을 없는 일로 해달라 부탁을 했다. 아내는 보석에 눈이 멀어 재판관에게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올바른 재판관은 단칼에 거절하였다. 아내는 귀한 보석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도 죽고 아이도 함께 죽겠다고 협박했다. 밤새껏 고민한 재판관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면 생각이 미쳤고 결국 아내의 말을 듣기로 했다.

다음 날, 외아들과 상인이 재판관을 찾아왔고 외아들은 재판관이 증인을 쓴 것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관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잡아떼었다. 이에 몹시 분개한 외아들은 “이 사실이 옳고 그름은 이 다음에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고 찾아온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였다.

“그때의 재판관은 지금의 그 눈도 귀도 혀도 수족도 없는 두루몽수리 바로 그 사람이요. 그는 그때의 위중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지옥에서 나와서는 5백 생 동안 늘 두루몽수리의 몸을 받았소. 그러면서도 그가 많은 재산을 상속 받게 된 것은 평소에 보시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요. 명심하시오. 선악의 갚음은 이와 같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사라지지 않소. 그러므로 항상 몸과 말과 뜻을 잘 단속하여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현재의 평온함을 지키고자 더 큰 욕심을 낸다면 그 욕심에 잠식되면 현재의 평온함을 잃을 것입니다. 바르고 진정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길입니다. 거짓 고발과 나몰라라식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현재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습니다. 남이 그렇다 하여 함께 그러하지 말고 나에게 손가락을 돌려 스스로를 단속함이 더 이상 병든 사회를 만들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



피꼬리

Black-naped Oriole

정옥식

조류학 박사
환경생태연구원

무더운 여름날의 연속이다. 아침에 눈떠서 잠들 때까지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정치, 경제 관련 단어도 아닌 ‘덥다’이다. 저녁을 먹고 돌아온 사무실은 여전히 덥다. 에어컨을 켜도 절전을 위해 일정 온도로만 설정되는 탓에 해가 기운 저녁이라도 덥기는 매한가지다. 도시 생활에선 유일한 폭염 피난처가 에어컨이 있는 공간인데 이마저도 어려우니 어릴 때 외할머니 댁 동네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이 그리워진다. 건물을 나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 그늘 아래를 거닐다 샛노란 색의 선을 굿고 나는 피꼬리를 만났다. 울

해 태어난 녀석이 이 여름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피꼬리는 전세계적으로 27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라시아 대륙에 서식한다. 신대륙에도 오리올(Oriole(피꼬리의 영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들이 살고는 있다. 메이저리그 구단 중 하나인 볼티모어 오리올스(Baltimore Orioles)의 상징이기도 한 볼티모어 오리올스(Baltimore Orioles)가 유명한데 신대륙의 오리올(Oriole)은 이름만 같을 뿐 구대륙의 것과는 거리가 먼 종이다.

우리나라에는 1종의 피꼬리(Black-naped Oriole)가 서식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여름철새 중 하나이다. 몸의 크기는 대략 25cm 내외이며 몸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띤다. 부리는 분홍색이며 날개 끝과 꼬리는 전반적으로 검다. 눈을 지나는 검은색의 눈선이 있으며 수컷의 눈선은 암컷보다 조금 굵다. 또한 수컷은 암컷보다 몸의 색이 선명한 노란색을 띤다. 대체로 4월말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오며 전국의 산림지대 뿐만 아니라 도시 내 공원, 대학 캠퍼스 등에서 흔히 번식한다. 나뭇가지 끝에 풀잎을 엮어 밥그릇 모양의 둥지를 만들며 열은 분홍빛을 띤 흰색 바탕에 적갈색의 무늬가 있는 알을 4개정도 낳는다. 먹이는 대체로 곤충을 먹으며 나무 열매를 먹기도 한다. 겨울철이면 동남아로 이동하며 알려진 월동지는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 싱가포르, 중국 남부지방 등이다. 울음소리가 이쁜 탓에 중화권에서는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고 있으며 잘 알다시피 국내에서도 노래 잘하는 사람을 피꼬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피꼬리는 아름다운 모습과 소리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시나 노래, 그림 등에도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시성(詩聲)으로 알려진 두

보^{杜甫}가 지은 강반독보심화^{江畔獨步尋花}, 절구만홍구수^{絕句漫興九首1}, 축상^{蜀相}이나 당나라 시절의 묘사음악^{描寫音樂}인 춘앵전^{春鶯囀} 등이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봄의 환희나 전령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아마도 피꼬리가 찾아오는 시기(4월말이나 5월초순)를 초여름보다는 완전한 봄으로 여긴 탓으로 보인다.

피꼬리는 이쁜 모습이나 아름다운 소리와 달리 성격은 그다지 온순하지 않다. 특히 등지 주위에 천적이 나타나면 표독스럽게 울어 대며 경계를 한다. 경계할 때는 ‘개엑 개엑’ 하고 거친 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를 두고 정지용 시인은 ‘피꼬리’라는 수필에서 ‘쭉쭉 찢는 듯이 개엑 객거리는 것은 저것은 표독한 처녀의 질투에서 나오는 발악’이라는 재밌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만약 등지 가까이에 접근하기라도 하면 위협 비행을 한다. 빠른 속도로 내리꽂으며 공격을 하는데 마치 폭격기 같다. 심지어 부딪치기도 한다. 때문에 피꼬리 등지에 접근하려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 ‘피꼬리’를 인용한 대표적인 문학작품으로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등장하는 유리왕의 ‘황조가^{黃鳥歌}’일 것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랑하던 계비 치회를 잃은 서글픔과 외로움을 다정한 피꼬리와 대비시켜 형상화한 시이다. 필자의 경우도 생태계 조사 차 머물던 동남아 밀림 지역에서 풍토병에 걸려 고생하다 향수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 마침 그곳에서 월동하던 피꼬리를 만나 ‘한국에서 온 녀석이겠지...’하며 잠시나마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시를 대할 때의 감정은 개인적으로도 남다르다.

그러나 예전부터 이 작품에 의문을 가진 점이 하나 있다. 과연 ‘황조^{黃鳥}’가 피꼬리일까? 피꼬리의 중국식 정식 명칭은 황리^{黃鵲}이다. 누를 황^黃에 피꼬리 리^鵲를 쓴다. 또한 두보의 시나 기타 다른 한시들을 보더라도 피꼬리는 대체로 피꼬리 리^鵲 혹은 앵^鶯자를 사용한다. 그 외에도 피꼬리를 칭하는 글자가 10여 개에 달할 만큼 많지만 일반인들은 대부분 리^鵲와 앵^鶯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였다. 게다가 중국 유학파인 유리왕이 리와 앵, 이 두 글자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피꼬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또 하나의 근거는 황조를 목격한 시기이다. 과거 고구려 시대 왕실에서 행하던 사냥 행사는 주로 겨울철에 이뤄졌다고 했다. 며칠간의 사냥에서 돌아온 유리왕이 ‘치회’가 모국으로 돌아간 것을 알아차리고 뒤늦게 뒤따랐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황조’를 지었다 하니 유리왕이 여름철새인 피꼬리를 만났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시흥^{詩興}이 깨어질지 모르지만 황조가에 등장하는 황조는 피꼬리는 아닌 듯 싶다. 단순히 ‘노란색을 지닌 새’을 의미하는 듯 하며 ‘노란 새’로 번역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는 ‘펼펼나는 저 노란 새, 암수 서로 정답구나...’라고 읊었으면 한다.

내일도 걱정이다. 내일은 또 얼마나 더우려나. 아침 눈 뜨기가 두렵다. 황조^{黃鳥}가 피꼬리가 아니면 어떠랴 어서 빨리 피꼬리 떠나는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



계속되는 장마비로 눅눅한 습기를 머금은 새벽.
 어명(黎明)도 느껴지지 않는, 어둠을 삼키며 홀로 반짝이던 벽시계는
 4:00에서 더 선명한 붉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몽롱한 정신 추스리듯 창문을 열어
 밤새 머물렀을 서원당의 정적을 걷어냅니다.
 텅개에 가리어 완전하지 않은 천장 불빛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적막과 고요를 조금씩 깨우려 합니다.
 불단 끝자락에 생명을 얻어 다시 피어난 꽃들의
 어쩔 수 없이 초췌한 웃음에 화답이라도 하듯
 공양 올린 촛불이 유난히 환하게 흔들립니다.
 깊어진 여름의 잠풀로 무성해진 화단 어디인가
 문득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비 그치면 한껏 물을랐을 초록의 잎들과 잡초 덩불속에서도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는 배려가 어쩐지 알미울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익숙해진 빗소리에 얼마간 침묵의 시간이 흐르면
 삶이 지난(去來)했음을 말해 주는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낮빛만큼은 해맑은 노보살님의 투덕거리는 걸음이
 서원당의 남은 고요와 우기(雨期)의 젖은 공기를 말리듯 빨라집니다.

평형 잃은 몸짓으로 피워 올리는 향불.
 코끝 찡한 울림으로 전해지는 간절함.
 ‘그 서원을 꼭 이루게 하여 주소서...’
 더불어 간곡해지는 마음이 됩니다.

삶의 훈장을 단 연세 많으신 보살님들의 숨가쁜 등장이 이어지고
 이른 시간부터 노래하는 새소리에 어느새 비는 그쳐 있습니다.
 잠시 헛돌던 번뇌 조각들을 주워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봅니다.
 어느 생애선가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났을지도 모를 인연들.
 어느 생애선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다시 사랑하려
 만났을지도 모를 인연들.....
 저들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막연히, 우리가 만난 이 길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느낍니다.
 구도(求道)의 절망 하나 짊어지고 같은 길 걷고 있는
 저들과 나는, 또한 당신과 나는
 이 시간, 이 공간에서 부처님을 함께 만나는 ‘우리’가 됩니다.

길 위에서 함께 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 줍니다. ♪

라라랜드

김지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한 별들의 도시에서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라이언 고슬링)과 배우 지망생 미아(엠마 스톤)는 미완성인 서로의 무대를 만들어 나간다.

영화 제목 “라라랜드”는 ‘몽상의 세계’, ‘꿈의 나라’라는 뜻의 로스엔젤레스(LA)의 별명이자 부정적인 뉘앙스인 ‘live in la la land’라는 관용구로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어구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찾아 모여드는 도시의 적절한 별명임을 이 영화를 보고나서 깊이 동감을 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포기 할 줄 모르는 근성 등등은 분명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리도 가슴 깊이 와 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저들처럼 꿈을 꾸고 있는 이에게는 용기를 주고, 꿈을 잠시 미뤄두고 있는 우리의 식어버린 꿈엔 꿈의 불씨를 다시 살려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판타지적 로맨스와 이를 뒷받침 해 준 음악은 “꿈꾸는 바보”들에게 바치는 웅원의 드라마였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열정에 끌리게 되어있어.
자신이 잊은 걸 상기시켜주니까.”
-미아



감독 데이미언 셔젤은 2009년 라라랜드의 각본을 완성했지만 작품을 완전히 인정하여 어느 것 하나 바꾸지 않고 제작 자금을 기꺼이 빌려줄 수 있는 제작사를 찾지 못 했다. 신인인 그에게 모험을 걸 곳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셔젤은 자신의 꿈을 수정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은 채 2014년 <위플래쉬>를 성공시키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서밋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라라랜드는 제작에 들어갔다. 2016년 8월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 개막작으로 초연되어 전 세계가 열광했고 현재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꿈을 꾸고 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롱-테이크방식으로 우리를 영화 속에 머물게 했다는 것이다. 단 한 번의 편집도 없이 1~2분 이상의 쇼트가 길게 진행되는 롱-테이크.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꿈을 대하는 기본적인 절실함을 대변하는 것이었을까? 오프닝 스퀘스는 많은 무용수들이 수개월 동안에 걸친 연습과 리허설을 무한 반복하여 단 한 번

의 기회에 촬영을 완성했다. 그들의 열정과 집념이 놀라울 정도였고 우리를 사로잡기엔 충분했다. 댄서들이 뛰어오를 때 나도 그 대열에 끼여 함께 뛰어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 말이다. 거기에 배우들이 떴창 한 Another Day of Sun의 가사 또한 나에게 메시지를 진하게 남겼다.

“And when they let you down / The morning rolls around /
It's another day of sun
아무리 세상이 당신을 절망시킨다 해도 아침은 돌아와요.
오늘은 또 다른 태양이 뜨니까요.”

이 룽-테이크 방식은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완벽에 가까운 배우들의 피아노 연주나 노래 그리고 춤은 무한 연습의 결과였고 배우들과 제작진들의 숨은 노력 덕분에 우리는 한 호흡까지도 함께 하며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거기에 분위기에 맞춰 바뀌는 조명과 너무나 절묘하게 각 장면과 어울렸던 음악들 그리고 원색에 가까운 색감은 126분의 긴 러닝타임을 거뜬히 소화해 냈다.

또한, 고전 뮤지컬 영화에 대한 오마주를 가득 담아 오래전 꿈이 처음 시작 되었을 때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한 건 아닌가 싶다. 황혼의 언덕 위에서 이들의 환상적인 탭댄스는 ‘사랑은 비를 타고’(1952)와 ‘밴드 웨건’(1953)을 연상시킨다. 두 사람의 별빛 댄스에서는 ‘톱헛’(1935)을 연상시키고 재즈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나 과거나 현재가 자유롭게 교차되는 편집 방식은 ‘8과 1/2’(1963)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고전에 대한 오마주로 인해 관객은 진한 향수를 느낌과 동시에 신선한

21세기형 뮤지컬을 경험할 수 있었다. 신선한 결합에 의한 새로운 탄생은 맛보았기에 꿈에 대한 궤도 수정을 스스로들 조금씩 하진 않았을 까싶다.

“재즈는 꿈이야.
충돌하고 화해하고 매 연주가
모두 다른 음악이라고.
정말 흥분되지 않아?
-세바스찬”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자신의 능력치에 대한 불신으로 아니면 책임져야 할 현실 때문에 나의 꿈을 잠시 내려놓았다면 라라랜드를 통해 다시 한 번 꿈을 일깨워 보자. 미아와 세바스찬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 영화를 만든 모든 이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꿈꾸는 바보에 동참해 보라는 손짓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그 손을 잡고 하늘의 별들과 함께 꿈을 꾸보자. 꿈이 거창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꿈의 확실성과 보장성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꿈 자체를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최선일 것이다. 간절함과 노력으로 한 발 내딛어 시작해 보자. 시작도 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바보이다. 꿈꾸는 아름다운 열정의 바보가 되어 볼 것이다.

“별들의 도시여, 오직 나만을 위해 반짝이나요?
누가 알까요? 이것이 아름다운 무언가의 시작인지
혹은 또 한 번 이루지 못한 꿈일지. -미아 🌟”

순천 방생법회를 다녀와서

김정숙
자석사 교도



충지종에선 해마다 7월 15일엔 해탈절이라 하여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하며 천도재를 올린다. 다음 날인 16일엔 호국안민과 인간방생을 주제로 대법회를 이행한다.

올해는 총기 47년으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강당에서 부산 경남교구와 대구 경북교구가 종령님을 모시고 각사원의 스승님들과 500여명의 많은 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행되었다.

무더운 날씨 탓에 우리 일행은 아침 일찍 서둘러 순천시로 향함에

10시 반경에는 도착할 수 있었다. 법회가 열리는 강당에 들어서니 무대 벽에는 본존진언을 중심으로 양계 만다라가 봉안되어 서원당의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사원 신도들이 모여 들면서 강당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채워졌고, 12시에 식순에 따라 법회를 시작하였다.

올해 새 종령으로 추대되신 후, 처음 갖는 행사에 우리 영남지역 법회에 참석해 주셨기에 이번 법회가 더욱 뜻있게 생각되었다.

행사는 등공양을 시작으로 종령법어, 호국안민 발원문, 봉행사, 축사로 진행되었다. 종령님 법어로 그 어떤 작은 미물 마저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함부로 괴롭히거나 죽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불살생은 살생을 금할 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취미나 오락을 목적으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도 하셨다.

등공양은 각 사원 회장단들이 올렸는데 맑고 투명한 유리등잔에 불을 밝혀 더욱 경건하고 그윽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봉행사는 관음사 주교님의 힘찬 목소리로 그 어떤 종교보다 충지종의 우월성에 대해 말씀하실 적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며 내 인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 받은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셨다.

법회는 예정시간보다 늦게 끝났고, 각 사원별로 점심공양을 가졌다.

우리 자석사는 신도회 간부들이 더위를 무릅쓰고 정성껏 마련한 음식이라 맛나게 먹을 수 있었다. 사원을 위해 봉사하시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보살이 아닐런지.

2시부터 놀이 한마당이 시작되었다. 조출한 무대였지만 공통캐릭터로 등장한 사회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부터 웃음을 자아내었고, 우리 가락과 더불어 장구춤, 벽구춤이 대중들의 흥취를 돋구어 주었다. 각설이의 품바타령으로 놀이마당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그의 요상한 몸차림으로 무대 위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닐 적마다 폭소가 터져 나왔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초과하여 공연을 마쳤다. 이번 법회는 2부 순서로 인하여 그 어느 해보다 흥겨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리산 자락에 있는 하동 와룡사를 탐방하기로 하고, 법성사와 성화사, 자석사, 세 사원이 함께 하동으로 출발하였다.

와룡사는 규모는 작지만 무량수전 석굴과 미얀마에서 기증받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적멸보궁, 마애불상 등 많은 문화 유적을 고루 갖춘 사찰이었다.

특히 와불이 인상적이었고, 와불 밑에 무량수전 석굴을 만들어 한여름 무더위에도 서늘한 찬공기가 새어나왔다. 삼신각 또한 높은 산자락에 큰 바위를 다듬어 산왕대신과 나반존자님을 마애불상처럼 만들어 두었기에 여느 사찰과는 특이한 형상이었다. 전각마다 삼배를 올리고 내려오는 길에 주지스님이 우리 일행에게 내어 주신 시원한 생

강차 한 잔이 더위와 피로를 씻어 주었다. 차 한 잔으로 베푼 스님들의 성의와 배려심에 감사할 일이다.

하동은 재첩국으로 유명한데 고맙게도 회장님 덕분에 하동의 별미인 재첩국을 저녁으로 맛볼 수 있었다.

방생법회는 호국방생이고 나눔과 화합의 방생이며, 그간 열심히 정진한 보살들에게 휴식의 시간이 되라고 총지중에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으며, 도반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특별한 날이 되기도 한다.

이리하여 49일 하반기 불공과 방생법회의 대단원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오늘의 여정으로 우리 사원의 도반들이 한층 더 성숙되고 친밀감을 느끼며 즐거운 신행길이 되었으면 한다.

나 또한 일상으로 돌아가 흔들림 없이 내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



당신도 아버지입니다

- 신부와 함께 입장한
두 아버지의 '뭉클' 결혼식



최근 미국의 한 지역방송이 두 명의 아버지와 결혼식장에 입장한 신부 가족의 사연을 소개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서 신부의 손을 잡은 아버지가 입장을 준비하다 하객석으로 들어갔다. 이어 그는 한 남성의 손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남성은 바로 신부의 친아버지였다. 이 감동적인 장면에 하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딸 결혼식에 친부 초대한 의붓아버지!

멀리서 딸의 결혼식을 지켜본 친부는 의붓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날 결혼식은 그래서 특별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야외공원. 이날 브리트니 팩 토드(21)의 결혼식이 있었다.

여느 결혼식처럼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하객이 모였고, 신랑 입장이 끝난 후 신부입장을 앞두고 있었다.

사람들은 신부가 의붓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리라는 생각과 함께 기대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브리트니의 의붓아버지 토드 샌드로스키(45)는 돌연 결혼식을 중단시킨다. 상상했던 장면과 달라서였을까.

영문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신성한 결혼식 날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그를 비난했다. 하지만 샌드로스키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뛰어갔고 나무 뒤편에서 숨죽여 딸의 모습을 지켜보던 브리트니의 친아버지 토드 바크만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돌아왔다.

식장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뒤.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딸이 울면서 침묵은 깨기 시작했고 이내 하객들로 이어졌다.



‘여기서 울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다’
샌드로스키의 깊은 마음에 신부 브리트니
는 오른편에 키워준 아버지를, 왼편에는
친아버지와 함께 신부입장을 할 수 있었다.

샌드로스키는 “친부는 딸의 삶 일부였고
그 역시 같다. 딸의 결혼식이라는 인생 최
고의 날 그를 빼놓을 수 없었다”며 “친부를
초대한 것은 나의 유일한 권리”라고 말했다.

브리트니는 “엄마와 나는 친아버지를 멀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며 의붓아버지의 배려에 감동의 눈물을 흘
렸다.

친부 토드는 “나는 항상 딸의 결혼식에 함께 입장하길 원했고 그 꿈
이 이뤄졌다”며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한 순간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었고 그 날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결혼식을 보며 ‘신부는 두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샌드로스키는 남몰래 이를 계획했다. ♣



산
책

연꽃

김대곤
시인

소리없는 바람 한 줄기
풀 잎 베고 지나가면

빼곡한 수풀에
햇살은 불을 갖다댄다.

수심을 방석삼아
올라왔은 연잎엔

지난밤의 녀두리 같은
결정체가 바람에 구른다.

겹겹이 바람담고
물 밖 세상 사연 한잎 한잎 담는다.

가슴시린 사연일까
푸르른 잎

사랑 가득한 사연일까
붉은 잎

생각없는 걸음에 바쁜
개구리 눈 망울엔

구름만 가득하다.

물 밖 다 피워내지 못한
사연들만 무채색으로
서성거린다.



전수님과 친해지기

여순애
자석사 교도

올 해 새해 불공을 시작하면서 전수님이 새로 오셨다.

난 전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늦게야 뵌 수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전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해 주셨지만, 사실 내 뜻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 마음에 그리 와닿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바른 법을 하셨는데 말이다.

그리고 이제야 알 것 같다.

전수님 말씀에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그건 나를 깨우치는 깨달음의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난 전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점점 가까워진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꽃꽂이에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님은 모색하신다.

일부러 꽃 꽂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내가 꽃꽂이 하는 것에 대해 글로 쓰시기도 하셨다.

그것 때문일까 난 계속 꽃을 꽂고 전수님의 칭찬에 기뻐한다.

칭찬과 용기의 힘이 없었으면 지금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꽃꽂이를 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의 재능을 빛내 주시는 전수님께 많이 감사해 한다.

또 전수님의 이끌림에 글을 적어 보는 시간을 가지게도 되었다.

사실 난 내 이야기 하기를 꺼려한다.

그런데 전수님의 권유로 통신원 활동을 하면서 종보에 발레를 보고 온 감상문을 적게 된 것을 계기로 이렇게 종종 글을 쓰게 되었다.

글을 쓰게 되면서, 풍부한 어휘가 활용되어 좋은 글이 만들어지듯 어찌면 나도 사람들 속에서 내 의견을 조리 있고 편한 마음으로 잘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사람의 관계란 참 오묘한 것인가 보다.

처음에는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마음을 열지 않았던 내가 시간이 갈수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좋은 스승님으로 여기게 된 것을 보면 선불리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개발과 발전을 기뻐하시는 분과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절에 열심히 다닌 공덕이라면 오늘도 난

자석사로 가서 전수님과 친해지기를 계속하려 한다. ♪



눈앞의 향락에 빠져

범일
벽룡사 주교



옛날 소 잡는 사람이 천 마리의 소를 기르면서, 매일 한 마리씩 잡아 고기를 팔았다. 오백 마리를 이미 잡았는데 남은 오백 마리는 그저 뛰어 놀며 장난치고 서로 뽀싸움도 하였다. 이때에 세존께서 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가엾게 생각하여 모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이 소들은 어리석어서 저와 제 동무가 곧 다 죽을 것인데 함께 장난만 치고 있구나. 사람도 또한 이러하여 향락에만 마음이 쏠려 있으니, 어찌 가엾지 아니한가.”
(아육왕비유경)



어느 사람이 술에 취해 늪지대 쪽으로 가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술 취한 사람에게 소리쳤다.
“여보시오. 그쪽으로 가면 늪이요. 거긴 친구령이란 말이요.”

술 취한 사람이 돌아보면 말하였다.
“어- 형씨. 알고 있소. 나 같은 무지렁이야 빠져봤자 나 하나지만, 당신 같은 양반네는 거느리는 줄개들도 많을 터이니 당신이나 조심하슈!”

소들이나 술 취한 사람이나 눈앞의 향락에 빠져 곧 닥칠 위험을 알려 주고, 경고해 주어도 고마움을 모르고 ‘너 나 잘하란’식이다.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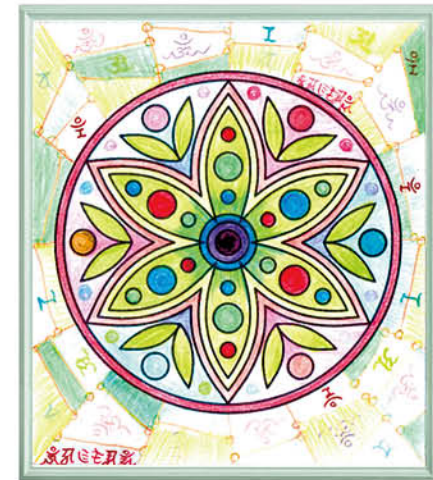


*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

지난 호 독자 솜씨



▲ 울산 서인숙 님



▲ 울산 이광덕 님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신

身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身 몸 - 신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있거나 실내 온도가 알맞은 방안에 있으면 낯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기분도 누그러진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협상을 하면 마음이 부드러운 남자도 상대를 심하게 다그치게 된다. 이는 사회적 판단이나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 인지와는 무관해 보이는 깨끗함, 따뜻함, 딱딱함과 같은 감각도 인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신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이론의 사례들이다.

인식주관과 인식의 객체 그리고 마음과 세계는 상호규정 또는 의존적인 상호발생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이는 불교 연기법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신^신은 범어 '까야[kāya]'로 '모여서 쌓임'을 말한다. 육근^{六根}¹⁾중의 신근^{身根}으로, 유부에서는 촉각기능을 가진 눈에 안 보이는 일종의 정묘한 물질 곧 승의근^{勝義根}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그대로 몸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신은 부처님의 3가지 몸^{三身}의 특성 속에서 깊고 넓게 이해할

수도 있다.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수행 목표로 삼는 반면, 대승에서는 3아승기 100겁 동안 윤회하면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닦은 후 성불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모든 고통의 뿌리인 삼독심의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면 소승불교의 최고 성자인 아라한이 된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지향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번뇌를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처인 삼신^{三身}, 즉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을 성취해야 한다.

현교인 대승보살도를 통한 성불의 길은 지고지난하고 요원하다. 그래서 현교 수행을 어느 정도 익힌 수행자는 밀교 수행에 들어간다. 현생에 부처의 삼신인 법신과 보신과 화신 모두를 성취하여 보다 많은 중생을 빨리 제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불공삼장은 『총석다라니의찬』에서 “삼밀^{三密}에 상응^{相應}하는 문에 의지할 때 많은 겁 동안 난행^{難行}과 고행^{苦行}을 하지 않고, 능히 정업^{定業}을 닦을 수 있다. 밀교는 빠르고 쉽게, 안락하게 성불할 수 있는 속질지도 速疾之道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밀교에서 신^신은 신밀^{身密}을 통해서 공성^{空性}의 법신의 체^體와 결합되어, 모여서 쌓임 없는 쌓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불의 길과 방편의 길이 어긋남이 없게 되는 것이다. 1

1) ① 안근(眼根:시각기관과 시각능력), ② 이근(耳根:청각기관과 청각능력), ③ 비근(鼻根:후각기관과 후각능력), ④ 설근(舌根:미각기관과 미각능력), ⑤ 신근(身根:촉각기관과 촉각능력), ⑥ 의근(意根:사유기관과 사유능력)

요사

寮舍

寮 동관 - 요

숨 집 - 사

① 학교^{學校}나 공공단체^{公共團體}의 기숙사^{寄宿舍}

② 절에 있는 승려^{僧侶}가 거처^{居處}하는 집

스님들이 생활하는 건물을 통틀어서 요사라 한다.

지혜의 칼로 무명을 벤다는 심검당^{尋劍堂}, 말없이 명상한다는 적묵당^{寂默堂}, 참선과 강설의 복합적 의미의 설선당^{說禪堂}, 올바른 행을 하는 곳이란 해행당^{解行堂}, 참선하는 곳이란 수선당^{修禪堂}, 불전에 올리는 공양은 향나무를 때 밥을 짓는다는 향적전^{香積殿}, 조실 스님이나 대덕 스님이 머무는 염화실, 반야실 등의 다양한 명칭이 있다.

법당은 일반적으로 불·보살님을 모시는 상단,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을 모시는 중단, 영가를 모시는 영단의 삼단구조로 되어 있다. ♪



제5회

청소년 바른인성 형성 프로그램

참된 나를 찾는 여행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이!

모집기간

2018. 07. 16 ~ 12. 15

(모집기간 중 1박2일 선택)

모집대상

(선착순)

☒ 초등학생 (4학년이상)

☒ 중·고등학생

☒ 팀으로 참가 (4-8명)

신청서 접수 및
참가문의

각 사원 주교 및 행사 접수처로 문의

☎ 02-552-1080~3

✉ sukkim18@hanmail.net

한마음
캠프 안내

일시 | 추후공지 (겨울방학내 2박3일 예정)

장소 | 추후공지

대상 | 나를 찾는 여행 참가자 전원

내용 | 여행 후기 발표 인성강의 문화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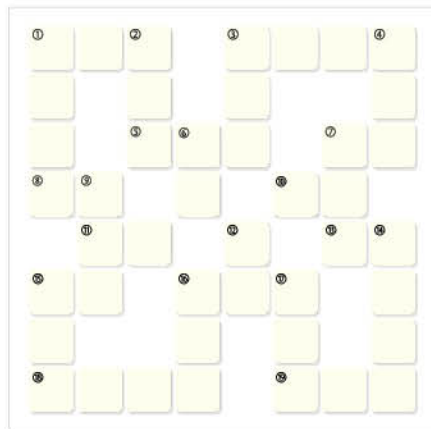
주최 불교총지중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가로세로 낱말퀴즈!



가로문제

- ① 주식을 손해볼까 감수하고 파는 일
- ③ 예상외로 힘을 가진 후보자나 선수
- ⑤ 서로 비교하여 이리저리 헤아려 보는 일
- ⑦ 인연이 닿는 길
- ⑧ 철에서 치는 북
- ⑩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 ⑪ 눈이 가는 길
- ⑫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 ⑬ 급히 만들
- ⑭ 일을 할 때 쓰는 모자
- ⑮ 치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탄
- ⑯ 알-□□□-번데기-성충

세로문제

- ② 중국 오나라 손무의 병법서
- ④ 연예인의 섭외나 관리를 하는 사람
- ⑥ 인내력이 부족한 기질
- ⑧ 시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
- ⑩ 걸맞다면 우는 아이
- ⑫ 두 나무의 가지가 한나뭇처럼 자라는 현상
- ⑭ 갑오개혁 이전에 창작된 시조
- ⑮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함
- ⑯ 체면이 서도록 하는 행동
- ⑰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
- ⑱ 차나무의 어린 새싹을 따서 만든 차
- ⑳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

발행처: 위드 다르마 발행처: 위드 다르마 발행처: 위드 다르마 발행처: 위드 다르마
 발행처: 위드 다르마 발행처: 위드 다르마 발행처: 위드 다르마 발행처: 위드 다르마
 발행처: 위드 다르마 발행처: 위드 다르마 발행처: 위드 다르마 발행처: 위드 다르마

불자님의 사연을 모읍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sunmac72@naver.com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민두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종철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한미영	허지웅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드다르마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47(2018)년 8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디자인: (주)디자인지
 인쇄: 동림기획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편집 후기

또 한여름

- 김종길

소나기 몇자 매미소리
 젖은 뜰을 다시 적신다.

비 오다 멎고,
 매미소리 그쳤다 다시 일고,

또 한여름 이렇게 지나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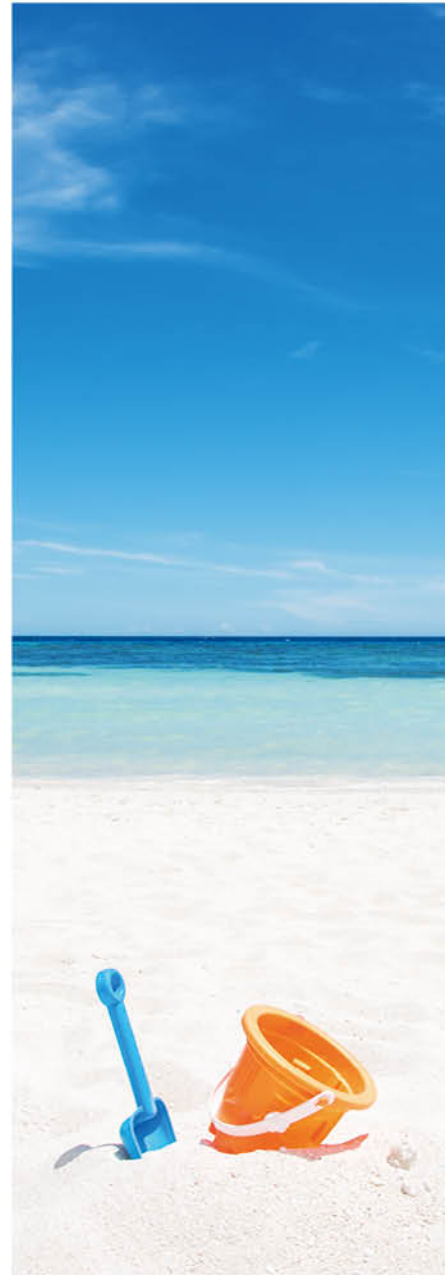
소나기소리 매미소리에
 아직은 성한 귀 기울이며

또 한여름 이렇게 지나보내는가.

올해는 유난히 덥네요.
 뜨거운 햇살이 우리 모두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햇살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각기 틀리네요.
 우리의 여름에도 각자의 색깔이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여름 햇살의 색깔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에게 맞는 색깔로
 이 여름을 잘 보냈으면 합니다.



8월호



배우는 기쁨보다 큰 것이 없고
가르치는 보람보다 큰 것이 없다

- 환당 대종사 -